

# 'KRE리포터' 경북지회 간담회 결과

## 1. 개요

- 목 적: 경북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 일 시: 2018년 1월 22일(월) 11:00~15:00
- 장 소: 경북 영주시
- 참 석: 총 21명
  - 경북지회 리포터(19명): 강진하, 박동준, 김갑순, 김병대, 김상원, 김영식, 김인남, 김정숙, 김향민, 신봉숙, 이병달, 이종명, 정태근, 최태봉, 한상준, 김해수, 김현원, 박생순, 홍용표
  - 연구원 관계자(2명): 송성환 전문연구원,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00~11:30	집합	
11:30~12:00	회원 소개 및 인사	회원 농산물 참조
12:00~13:00	간담회	지회장, 총무선출 등
13:00~14:00	점심식사	영주한우마을
14:00~15:00	농촌관광 견학	소수서원

## 2. 주요 논의 내용

### ○ 회원 소개 및 인사

- 강진하: 입업에 종사한 지 30년이 넘었다. 산양삼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홍용표: 울진에서 친환경 마늘 생산하고 있다. 마늘 비교적 평균소득이 높아 각광받는 품목이다.
- 한상준: 예천에서 전통식초를 생산하고 있다. 식초협회장을 겸직하고

- 1 -

있으며, 식초학교를 운영하며 유통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 이종명: 봉화군에 귀농한 지 8년차가 된다. 일본에 비해 우리 농촌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안타깝다. 변화 및 계제가 필요하다.
- 이병달: 영양에서 산양봉, 양봉체험 등을 하고 있다. 한국전통가공식품 협회장 2회 역임하였다.
- 박용수: 청송에서 사과농사를 하다 고추, 배농사를 하고 있다. 본인은 연구원 현지통신원으로서 78년부터 활동 중이다.
- 김해수: 봉화군에서 수박, 고추농사를 짓고 있다.
- 김영식: 경산에서 대추를 생산하고 있다. 리포터 회원들끼리 많은 정보공유로 농업을 함께 끌고 나가길 희망한다.
- 김인남: 상주에서 오이를 생산하고 있다. 농업정책에 대해 좋은 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 리포터 역할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지역에서 명성이 있는 분들이 함께 활동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 박동준: 대구에서 친환경 찰벼, 양파육종을 하고 있다.
- 김병대: 리포터 회원 선배들의 노하우를 많이 배우겠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 정태근: 구미에서 쌀, 기능성 유색미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치매예방 쌀을 생산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주기 바란다.
- 최태봉: 고령에 귀농한 지 37년차가 된다. 전통장을 연구하며 최근에는 아들이 귀농해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 중이다.

### ○ 경북지회장 및 총무 선출

- 지난 해 11월, 정태근 경북지회장이 리포터 중앙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지회장과 결직이 가능하나, 후임자가 더욱이 잘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며 경북지회장을 새로이 선출하고, 개인 사정에 의해 활동이 어려운 김정숙 총무를 대신할 신임 총무를 지명하고자 한다.
- 정태근 회장이 김인남 회원을 지회장으로 추천하였으며, 회원 전원의

- 2 -

만장일치로 김인남 지회장을 선임, 리포터회 회칙에 따라 총무는 지회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김항빈 회원을 총무로 지명하였다.

[경북지회장 및 총무 선출결과]

- 경북지회장: 김인남 (경북 상주시)
- 경북지회 총무: 김항빈 (경북 문경시)

○ 「농업전망 2018」 행사 안내

- 일시: 2018년 2월 1일(목) 13:00 ~ 16:20
- 장소: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 지회 총무가 회원 참석여부를 조사 후 사이트에 미리 사전등록하기로 하고, 경남지회 간담회와 병행해 점심식사는 경남지회 회원과 함께하기로 하였다.

○ 경북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 김인남: 농기계 운영 남자 위주로 다루게 되어 있다. 여성을 배려한 농기계를 마련해야 한다. 편의시설을 마련해 최대한 쪼그려 앉아 하는 일을 줄이려 하는데, 관절 등에 굉장히 안 좋다. 농기계 편의기구 마련해야 한다.
- 김항빈: 본인은 사과농사를 짓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느라 제조 등만 도와주고 있다. 농사일이다 집안일도 하고 육아를 해야 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 여성 농기계는 최근 많이 개발되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정부에서는 여성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 김영식: 국제 기준 수영장 크기에 농약 한 방울을 떨어트리면 농약검출 기준에 걸리게 되어 있다.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 전량 폐기해야 하는데, 품목별로 구분이 없다. 농약 하나에 5천만 원 개발비가 든다는데 PLS제도 시행 전에 어떤 품목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농약을 개발해야 한다.

- 3 -

- 김갑순: 우리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시 교육 해주고 있다. 보험도 넣어주고 현장에서 운반까지 해주어 도움이 된다.
- 김인남: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에서 남성 위주 농기계를 사용하다보니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지역에서 여성농업인 전용 농기계를 지원했는데 사실 승용의 개념 외에 기계를 다루는 것은 자꾸 하다보면 숙달될 것이라 생각된다. 여성만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해수: 영농 시 피복한 비닐 재활용이 어렵다. 한 곳에 모아서 공동수거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제대로 모으지도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먼지, 냄새, 농약 등 안 좋은 성분이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3. 이모저모



- 4 -